



‘미국 오리곤 피노 누아의 대표 주자’

에라스 리랜드 피노 누아

Erath Leland Pinot Noir

지역	오레곤 > 윌라멧 밸리 > 리랜드 빈야드		
포도품종	피노 누아 100%		
알코올	14.2%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열은 가넷 컬러를 지녔으며, 레드커런트, 레드체리 등 붉은과실 풍미와 함께 바이올렛, 장미 등 매력적인 꽃 풍미가 적절히 조화된 향을 가졌다. 혀에서는 검붉은과실 풍미와 함께 숙성이 진행될수록 가죽, 숲속 바닥, 젖은 낙엽 등 매력적인 숙성 풍미가 더해져 고급 와인의 매력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와인이다.		
페어링 TIP	붉은 육류/ 치즈/ 밀가루 음식		



제품설명



윌라멧 밸리 북쪽, 오레곤 시티 근처에 위치한 리랜드 빈야드는 케스케이드 산맥 인근에 위치한 하이 퀄리티 피노 누아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다. 오전 동안에는 차가운 한류 태평양으로부터 짙은 안개를 드리우고, 긴 일조 시간과 큰 일교차는 오레곤주 내에서도 최고의 피노 누아 생산지로 이곳이 손꼽히게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15개월 동안 100% French Oak(40% New)에서 숙성이 진행된 후, 병입된다. 병 숙성이 진행될수록 더욱 숙성 잠재력을 지닌 피노 누아 와인이다.

수상내역



2016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2점
 2015빈티지 로버트 파커 Robert Parker 92점
 2015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2점

와이너리



1934년에 설립된 샤토 생 미셀은 미국 와인의 기준을 세운 최초의 워싱턴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이다. 1967년부터 유럽 전통 포도 품종으로 다채로운 스타일의 워싱턴 와인을 선보였으며, 현재 워싱턴 지역의 AVA 등급 체계의 기반이 된 혁신적인 와이너리로 유명하다. 샤토 생 미셀은 콜럼비아 밸리 AVA 지역 내 총 1,416ha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워싱턴 주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콜드 크릭 빈야드를 포함하고 있어 와인에서 노련미와 숙성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유럽 와인 명가들의 합작을 통해 (콜 솔라레-이탈리아 안티노리, 에로이카-독일 닥터 루젠, 테네트-프랑스 가시에르) 워싱턴 주 와인 생산지의 위상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신대륙 와인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였다. 샤토 생 미셀은 총 다섯 가지의 레인지를 통해 콜럼비아 밸리가 가진 다양한 매력의 와인들을 선보이고 있다. 신대륙과 구대륙의 조화를 담아낸 ‘콜럼비아 밸리’. 풍부한 과실미가 두드러지는 ‘인디언 웰스’. 콜럼비아 밸리만의 고유한 페루아 특성을 여실히 나타낸 콜드 크릭과 카누 리지의 ‘싱글 빈야드’ 레인지. 워싱턴이 추구하는 구대륙 스타일의 베스트 빈티지 와인인 ‘에토스’. 마지막으로 보르도 스타일의 블렌딩 와인 ‘메리티지 시리즈’로 완성되는 샤토 생 미셀의 포트폴리오는 미국의 “베스트 벨류(Best Value)” 와인으로 유명하다. 샤토 생 미셀은 단조로웠던 캘리포니아 위주의 미국 와인에서 벗어나 미국 와인 산업에 새로운 척도를 마련한 워싱턴 1위 와이너리이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